

■ 2026 새해설계 이상익 함평군수

“민생 현장 목소리 경청...지역발전 비전 사업 추진”

빛그린 국가산단 중심 첨단산업 전환 가속화

K-HC Food·AI 축산으로 농업 경쟁력 고도화

“군민의 삶이 작년부터 분명히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군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익 군수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함평의 미래를 관통하는 군정 비전과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함평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군민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군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군은 재난 대응 방식의 전환을 예고했다. 사후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위험 관리에 무게를 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새해 군정의 중요한 축으로 제시됐다. 하천과 배수 시설 정비, 취약 지역 점검 강화는 물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와 군민 참여형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예측하고 대비하는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함평의 중장기 발전 전략의 핵심은 미래 산업

전환이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과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기존 산업 구조의 한계를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단순한 공장 집적지를 넘어,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으로 육성된다. 이를 통해 함평을 전남 서부권 산업 지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농축수산업 분야에서도 함평형 경쟁력 강화 전략이 본격화된다. 군은 K-HC Food를 중심으로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며, 국제 시장 진출을 통해 지역 농업의 외연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단순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 가공과 유통, 브랜드 가치까지 아우르는 구조로 전환해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는 첨단 AI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이 꼽힌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축산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경

쟁력을 강화한다. 여기에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다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군수는 “농업은 함평의 뿌리이자 미래”라며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농업 모델을 통해 농민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젊은 세대도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도 군정의 핵심 과제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많은 지역이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군수는 “청년들이 꿈보다 생존을 먼저 고민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도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과 고용 기반을 강화한다. 산업 단지와의 연계한 일자리 창출, 청년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교육과 인재 양성 정책을 통해 ‘떠나는 지역’이 아닌 ‘머무르고 싶은 함평’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인재양성기금을 포함한 교육 지원 확대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로 평가된다.

과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도전의 기호가 넘쳐

던 공동체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체육·복지 정책도 강화된다. 문화와 체육 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일상 속 여가와 휴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한다.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 역시 한층 촘촘해진다. 의료와 돌봄,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 체계를 통해 누구나 아플 때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편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군정의 모든 정책은 ‘군민 체감’을 기준으로 설계된다. 형식적인 사업 나열이 아닌,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행정

이 이상의 군정의 지향점이다. 이상익 군수는 “함평 군정은 언제나 군민의 삶에서 출발한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평의 미래를 위한 지역발전 비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끝까지 책임지는 군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지원 함평군 손불면은 복지기동대,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협력해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번 집중 지원 활동은 겨울철 한파·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추진,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거환경과 안전 상태를 살피고 난방시설·가스 사용 실태 등 화재 취약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사진제공=함평군

고흥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35억9000만원 ‘전남 1위’

전년비 286% 증가...답례품 발골 등 결실

고흥군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총 35억9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실적은 2024년 모금액 9억3000만원 대비 약 286% 증가한 수치로, 고흥군 고향사랑기부제가 단기간의 일회성 성과를 넘어 안정적인 모금 기반을 구축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군은 현장 중심의 홍보 강화와 민간 플랫폼 연계를 통한 기부 접근성 확대, 기부

자 예우 프로그램 운영, 지역 농수특산물 활용한 답례품 경쟁력 제고 등 기부자 중심의 운영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전국 각지의 참여로 이어지며 모금 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2025년 지정기부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지원 분야에 집중돼 전체 지정기부의 약 77.5%를 차지했다. 이는 지역 의료 공백 해소라는 명확한 목적 제시를 통해 기부자의 공감과 신뢰를 이끌어 낸 결과다.

기부자 구성 측면에서도 전국 각지의 향우회원과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의 참여가 모금 확대를 견인했으며, 10만원 단위의 소액 기부자 또한 주를 이루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폭넓은 참여 기반을 형성했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 260명이 총 6억8653만원을 기부하며 제도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했으며, 지난해는 최고 기부 한도인 2000만원을 기부한 최고액 기부자도 8명으로 집계됐다.

매월 꾸준히 기부에 참여한 기부자가 12개월 동안 총 760여만원을 기부하는

사례도 확인돼, 일회성 참여를 넘어 지속적인 나눔 문화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성과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온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흥군 관계자는 “2025년 전남 1위 기록은 기부자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 값진 결과다”며 “앞으로도 고흥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과 기부자가 함께 성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광양, 마스코트 디자인 7종 선정

최우수상 ‘매항이’...공식 상징물 예정

광양시는 ‘광양시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최종 7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눈높이를 반영한 참신한 마스코트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9월 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작품을 접수한 결과 총 363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은 2개월에 걸쳐 내부 심사위원과 전문가 심사, 시민 선호도 투표를 단계적으로 진행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종합 평가를 통해 최종 7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매화꽃 모자를 쓴 양 캐릭터 ‘매항이’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백운산 모자를 쓴 구름 정령 ‘백운이’와 광양의 먹거리인 기정떡을 형상화한 ‘기정이’가 각각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찌너’, ‘광

불이’, ‘고로미’, ‘백운이(반달가슴곰)’ 등 개성 있는 캐릭터 4점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7개 작품은 최종 순위와 관계없이 향후 ‘광양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양시 공식 상징물로서의 등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후 캐릭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캐릭터의 명칭이나 디자인 일부가 보완·조정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기존 마스코트 ‘해아’는 변화한 캐릭터 트렌드와 매체 환경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마스코트 선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새로운 마스코트를 중심으로 세계관을 확장한 ‘캐릭터 프렌즈’를 함께 조성해 활용성과 시민 공감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보성,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농가경영 부담 완화

보성군은 기상재해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보성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지역에 경작지를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본점·별교지소·북부지소·남부지소 등 4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77종 560대의 임대 농기계를 감면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시행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에는 총 8837농가가 7392대의 농기계를 이용했으며, 감면 규모는 약 1억 3600만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농기계 공동 활용이 확대되고,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은 올해 역시 농촌 인력난과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에 2억원, 신형 농기계 구입에 1억원 등 총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임대 농기계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저온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8@gwangnam.co.kr

곡성물, 생산자 안정적 판로 지원

군, 내달 6일까지 신규 업체 모집

곡성군은 지역 농가와 생산자가 직접 만든 농특산물과 가공 상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군 공식 온라인 쇼핑몰 곡성물 신규 업체 접제를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

곡성물은 지난해 회원 수 3만6000명을 돌파하고 누적 매출 25억원을 넘어서며

지역 대표 온라인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정기 기획전과 시즌별 특별전 운영을 통해 꾸준한 소비자 유입을 이끌었으며 백화점과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 채널과 연계한 오프라인 판촉전까지 확대하며 판로 다각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올해 신규 업체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생산자와 소상공인이 이 유통망에 참여해 안정적인 판매와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 대상은 지역에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농축임업인, 생산자 단체, 가공식품 제조업체이며 신청 기간은 2월 6일까지로 읍면사무소 또는 곡성군 농정과 유통양정팀에 접수하면 된다.

곡성물에 입점한 업체는 판매 수수료가 없는 구조로 운영된다. 판매자가 제시한 보장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카드 결제와 결제 대행 수수료 역시 판매자 부담 없이 운영된다. 여기에 택배비 지원이 더해져 온라인 판매에 대한 진입 부담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mwsl@gwangnam.co.kr